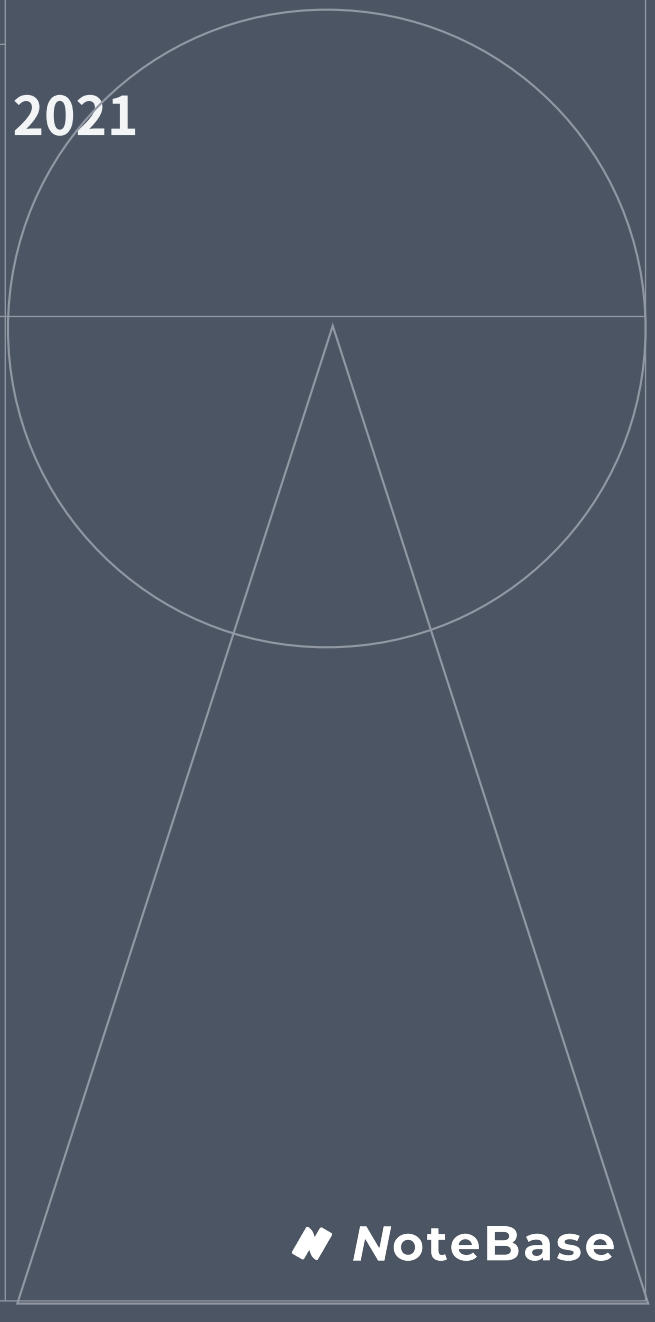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1

공무원/군무원/9급 · 국어 · 2021

1. 밑줄 친 단어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오늘 이것으로 치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② 내노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③ 예산을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④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와 눈길을 부딪치기를 꺼려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단어의 표준 표기와 문맥에 맞는 쓰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갈음하다'는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고, '내로라하다'는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뜻이다. '겉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한다는 뜻이며, '부딪치다'는 두 대상이 서로 맞닿거나 마주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치사를 갈음하다'는 '치사를 이것으로 대신하다'라는 뜻이므로 '갈음하다'의 쓰임이 알맞다.
② X — 틀린 표현은 '내노라하는'이다.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이르는 말은 '내로라하다'이므로 '내로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예산을 대충 짐작하다'라는 문맥이므로 겉으로 보고 대강 헤아린다는 뜻의 '겉잡다'를 활용한 '겉잡아서'가 알맞다.
④ O — '나와 눈길을 서로 마주치다'라는 뜻이므로 '눈길을 부딪치다'의 쓰임이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②의 '내로라하는'을 발음의 인상에 따라 '내노라하는'으로 잘못 적기 쉽다. 또한 ③의 '겉잡다'를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의 '걷잡다'와 혼동하기 쉽지만, 이 문장에서는 예산을 대강 짐작한다는 뜻이므로 '겉잡다'가 맞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표현을 문맥 속 뜻으로 바꾸어 본 뒤 표준형을 확인한다. ‘대표할 만하다’이면 ‘내로라하다’, ‘대강 짐작하다’이면 ‘겉잡다’, ‘통제하지 못하다’이면 ‘걷잡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표자는 ‘내로라’, 대강 짐작은 ‘겉잡다’, 통제 불가는 ‘걷잡다’이다.

NoteBase

2.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만도 하다.
②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
③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④ 그는 돕기는 커녕 방해할 생각만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띄어쓰기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하나의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척', '만', '등', '데', 단위를 나타내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조사는 체언이나 명사형 등에 붙어 문법적 관계나 뜻을 더하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는커녕'은 어떤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을 더하는 조사이다.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여 쓴다. '몇 등일지'의 '-ㄹ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척'과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각각 앞말과 띄어 쓴 '모르는 척', '넘어갈 만'이 바르다.
② O — 순서를 나타내는 '등'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몇 등'으로 띄고, 어미 '-ㄹ지'는 앞말에 붙여 '등일지'로 쓴다.
③ O — '데'는 어떤 일이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읽는 데'로 띄며, 날짜의 수를 나타내는 '일'도 단위성 의존 명사이므로 '삼 일'로 띄어 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돕기는 커녕'이다. '는커녕'은 조사이므로 앞말인 명사형 '돕기'에 붙여 '돕기는커녕'으로 써야 한다. 올바른 문장은 '그는 돕기는커녕 방해할 생각만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척', '만', '등', '데', '일'처럼 띄어 쓰는 의존 명사가 연이어 제시되어 '커녕'도 띄어 쓰는 말처럼 보이게 한 것이 함정이다. 그러나 '는커녕'은 조사이므로 '돕기는커녕'처럼 붙여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의존 명사인지 조사·어미인지 먼저 판별한다. 의존 명사이면 앞말과 띄고, 조사나 어미이면 앞말에 붙이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의존 명사는 띄고, 조사 '는커녕'은 붙인다: 모르는 척, 넘어갈 만, 몇 등, 읽는 데, 삼 일 / 돕기는커녕.

NoteBase

3.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목판이 오래되어 ㉠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 보판 혹은 보수판이라고 한다. 판목의 일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깎아 내고 대신 다른 나무판을 박아 글자를 새기는 경우가 있다. 이 나무판을 ㉢ 매목이라고 하고, 매목에 글자를 새로 새긴 것을 ㉣ 상감이라고 한다.

① ㉠: 毁損　② ㉡: 保版
③ ㉢: 埋木　④ ㉣: 象嵌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나타난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고, 각 음에 알맞은 한자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어는 소리가 같아도 한자의 뜻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맥을 기준으로 한자를 골라야 한다. '보판'은 오래되거나 없어진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한 판이므로 '보충할 보(補)'를 써서 補板이라고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훼손'은 물건을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한다는 뜻의 毁損이다. 지문의 '목판이 오래되어 훼손되다'라는 문맥과 맞는다.
② X — '保版'의 保는 '지킬 보'이므로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한다는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保版'이며, 올바르게는 '보충할 보(補)'와 '널빤지 판(板)'을 쓴 '補板'이다.
③ O — '매목'은 판목의 깎아 낸 부분에 박아 넣는 나무판을 뜻하므로 '묻을 매(埋)'와 '나무 목(木)'을 쓴 埋木이 알맞다.
④ O — '상감'은 바탕을 파고 다른 재료를 끼워 넣는 일을 뜻하는 象嵌이다. 지문에서 매목을 박고 그곳에 글자를 새기는 방식과 의미가 통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保'는 음이 '보'라는 이유로 고르기 쉽지만 뜻은 '지키다'이다. 지문에는 '다시 만들어 보충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보충하다'의 補를 써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의 앞뒤에서 뜻을 직접 보여 주는 표현을 먼저 찾는다. 같은 음의 한자가 제시되면 그 한자의 훈이 문맥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보판은 판목을 보충한 판이므로 保版이 아니라 補板이다.

NoteBase

※ 다음은 어떤 사전에 제시된 '고르다'의 내용이다.(4~5)

■ 고르다1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동사」 【…에서 …을】 여럿 중에서 가려 내거나 뽑다.
■ 고르다2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동사」 【…을】
「1」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2」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고르다3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형용사」 「1」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2」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4. 위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서로 동음이의어이다.
②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한다.
③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다의어이지만 '고르다 1'은 다의어가 아니다.
④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모두 현재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전에 제시된 세 '고르다'의 의미 관계, 품사, 활용 형태를 바탕으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고 현재진행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상 관련이 없는 서로 다른 단어이고, 다의어는 한 단어가 서로 관련된 여러 의미를 지닌 경우이다. 사전에서 '고르다1·고르다2·고르다3'처럼 표제어 번호가 나뉜 것은 서로 다른 동음이의어임을 나타내며, 한 표제어 아래의 '1·2'는 그 단어가 지닌 여러 관련 의미를 나타낸다.
세 단어는 모두 어간이 '르'로 끝나 '골라'처럼 활용하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한다. 현재진행형 '-고 있다'는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에는 결합할 수 있지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일반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르다1', '고르다2', '고르다3'은 형태와 소리는 같지만 각각 '선택하다', '평평하게 하거나 손질하다', '한결같거나 순조롭다'라는 서로 다른 뜻을 지닌 별개의 표제어이므로 동음이의어이다.
② O — 세 단어 모두 '고르다 → 골라'처럼 활용한다. 어간 끝 '르'가 '아/어' 앞에서 바뀌는 르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③ O — '고르다2'와 '고르다3'은 각각 한 표제어 아래에 관련된 뜻이 1·2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다의어이다. '고르다1'은 제시된 사전 내용에서 하나의 뜻만 있으므로 다의어가 아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모두 현재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다. '고르다1'과 '고르다2'는 동사이므로 '고르고 있다'와 같은 현재진행형이 가능하지만, '고르다3'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현재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고르다1과 고르다2는 현재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고르다3은 사용할 수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세 단어의 활용형이 모두 '골라'로 같다는 사실만 보고 품사와 문법 기능까지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활용 모양이 같은 것과 현재진행형이 가능한 것은 별개이며, ④의 '모두'가 틀린 판단을 만드는 결정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전의 표제어 번호와 뜻 번호를 구별한다. 표제어 번호가 다르면 동음이의어 관계이고, 같은 표제어 안에 여러 뜻 번호가 있으면 다의어이다. 다음으로 활용형은 어간의 변화로 판단하고, '-고 있다'의 결합 가능성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지 상태·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인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표제어 번호가 갈리면 동음이의어, 한 표제어 안에서 뜻이 갈리면 다의어이다.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에는 쓰지만 상태 형용사에는 쓰지 않는다.

NoteBase

※ 다음은 어떤 사전에 제시된 '고르다'의 내용이다.(4~5)

■ 고르다1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동사」 【…에서 …을】 여럿 중에서 가려 내거나 뽑다.
■ 고르다2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동사」 【…을】
「1」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2」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고르다3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형용사」 「1」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2」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5. 다음 밑줄 친 '고르다'가 위 사전의 '고르다2'의 「2」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판판하게 <u>골라</u> 놓았다.
② 요즘처럼 <u>고른</u> 날씨가 이어지면 여행을 가도 좋겠어.
③ 그는 이제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u>고르고</u> 있다.
④ 이 문장의 서술어는 저 사전에서 <u>골라</u> 써.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가 같은 '고르다'가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양상을 구별하고, '고르다2'의 [2]에 해당하는 용례를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고르다1’은 여럿 가운데 필요한 것을 가려 뽑는다는 뜻이다.
‘고르다2’의 [1]은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이고, [2]는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한다는 뜻이다.
‘고르다3’의 [1]은 높낮이·크기·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는 뜻이고, [2]는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는 뜻이다.
이 문항의 구별 기준은 ‘선택’, ‘평평하게 정돈’, ‘제 기능을 하도록 가다듬기’, ‘상태가 한결같음’ 가운데 어느 의미가 문맥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판판하게 골라 놓았다’의 ‘골라’는 울퉁불퉁한 곳을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므로 ‘고르다2’의 [1]에 해당한다. 틀린 분류는 ‘고르다2 [2]’이며, 올바르게는 ‘고르다2 [1]의 용례’이다.

② X
‘고른 날씨’의 ‘고른’은 날씨가 계속 한결같다는 뜻이므로 형용사 ‘고르다3’의 [1]에 해당한다. 틀린 분류는 ‘고르다2 [2]’이며, 올바르게는 ‘고르다3 [1]의 용례’이다.

③ O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고 있다’의 ‘고르고’는 흐트러진 호흡을 제 기능을 하도록 가다듬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엇을 다듬거나 손질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고르다2’의 [2]에 해당한다.

④ X
‘서술어는 저 사전에서 골라 써’의 ‘골라’는 여러 말 가운데 알맞은 것을 가려 뽑으라는 뜻이므로 ‘고르다1’에 해당한다. 틀린 분류는 ‘고르다2 [2]’이며, 올바르게는 ‘고르다1의 용례’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모두 동사 ‘고르다2’이지만 세부 뜻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①은 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1]이고, ③은 흐트러진 숨을 ‘제 기능을 하도록 가다듬는’ [2]이다. 또한 ②의 관형형 ‘고른’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상태가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형용사 ‘고르다3’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만 보지 않고 목적어와 문장 전체를 함께 본다. 여럿 중 하나를 뽑으면 ‘고르다1’, 표면이나 배열을 평평하고 가지런하게 만들면 ‘고르다2 [1]’, 어떤 대상이 제 기능을 하도록 가다듬으면 ‘고르다2 [2]’, 상태 자체가 한결같거나 순조로우면 형용사 ‘고르다3’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뽑기는 '고르다1', 평평하게 정돈하거나 기능하도록 가다듬기는 '고르다2', 한결같고 순조로운 상태는 '고르다3'이다.

NoteBase

6. 아래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로 옳은 것은?

>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 ㈎ 문학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왔다. 한문학에서 '문(文)'이라고 하던 것은 '시(詩)'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했다.
> ㈏ 시대가 변하면서 '문'이라는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 · 소설 · 희곡이 아닌 것 가운데는 수필이라고 이름을 구태여 따로 붙이는 글만 문학세계의 준회원 정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 ㈐ 근래에 와서 사람이 하는 활동을 세분하면서 무엇이든지 전문화할 때 문학 고유의 영역을 좁게 잡았다.
> ㈑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과거의 문학을 재단하지 말고, 문학의 범위에 관한 오늘날의 통념을 반성해야 한다.

① ㈎문단 뒤
② ㈏문단 뒤
③ ㈐문단 뒤
④ ㈑문단 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주어진 문장이 앞 문단의 내용을 요약·전환하고 뒤 문단의 내용을 예고하는 위치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 삽입 문제는 주어진 문장의 지시어·시간 표현·핵심어가 앞뒤 문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가)는 한문학에서 '문'의 범위가 넓었다는 과거의 관습을 설명하고, 주어진 문장은 문학의 범위를 좁게 보는 관습이 그보다 '나중에' 생겼다고 전환한다. 이어지는 (나)는 '시대가 변하면서' 문학의 범위가 좁아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문단 뒤에 놓으면 (가)의 '과거에는 문학의 범위가 넓었다'는 내용과 주어진 문장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의 관습이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대비된다. 또한 바로 뒤 (나)의 '시대가 변하면서'가 그 변화를 이어 설명하므로 가장 적절하다.

② X — (나)문단 뒤는 적절하지 않다. (나)는 이미 문학의 범위가 좁아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단이므로, 그 뒤에 변화의 개괄을 제시하면 일반적 설명이 세부 설명보다 늦게 나온다. 올바르게는 주어진 문장을 (가)문단 뒤에 두어 변화의 개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③ X — (다)문단 뒤는 적절하지 않다. (다)는 문학의 범위가 좁아진 원인을 근대의 전문화에서 찾는 문단이므로, 그 뒤에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라는 앞 단계의 설명을 넣으면 논리의 순서가 거꾸로 된다. 올바르게는 주어진 문장을 (가)문단 뒤에 두고, (나)와 (다)에서 변화의 과정과 원인을 이어 설명해야 한다.

④ X — (라)문단 뒤는 적절하지 않다. (라)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 문학의 범위를 판단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결론 문단이다. 그 뒤에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을 다시 제시하면 글의 결론이 약해진다. 올바르게는 주어진 문장을 (가)문단 뒤에 두어 본론의 전환 문장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주어진 문장이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내용이 자세히 설명된 (나)나 그 원인이 제시된 (다) 뒤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은 세부 설명을 마무리하는 문장이 아니라, (가)의 넓은 범위에서 (나)의 좁아진 범위로 넘어가는 전환 문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어진 문장의 '나중에'처럼 앞 내용을 요구하는 표현을 찾고, 다음 문단의 첫 표현이 그 변화를 이어받는지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가)의 과거 관습 → 주어진 문장의 새로운 관습 → (나)의 '시대가 변하면서'라는 흐름이 완성된다.

암기 포인트

넓은 문학의 범위(가) → 좁아진 것은 나중의 관습(삽입 문장) → 시대 변화에 따른 축소(나)이다.

NoteBase

7.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은?
① 아무래도 나 자리 뺐겼나 봐요.
② 오늘 하룻동안 해야 할 일이 엄청나네.
③ 그런 일에 발목 잡혀 번번히 주저앉았지.
④ 저희 아이의 석차 백분율이 1%만 올라도 좋겠습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형격 표현,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부사 표기, '률/율'의 구별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체언이 뒤의 명사를 꾸밀 때에는 관형격 형태를 쓰며, '동안'과 같은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번번이'는 '번번히'가 아니라 '-이'로 적는다. 한자음 '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 '율'로 적으므로 '백분율'이 맞다.

선지별 해설

① X — '나 자리'에서 '나'는 뒤의 명사 '자리'를 꾸미는 형태가 아니다. '나의'의 준말인 '내'를 써서 '아무래도 내 자리 뺏겼나 봐요.'로 고쳐야 한다. '뺏기다'는 '빼앗기다'의 준말로 쓸 수 있다.
② X — '동안'은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엄청나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잘못된 표기는 '번번히'이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때마다라는 뜻의 부사는 '번번이'이므로 '그런 일에 발목 잡혀 번번이 주저앉았지.'로 고쳐야 한다.
④ O — '백분'은 'ㄴ' 받침으로 끝나므로 '률'이 아니라 '율'을 붙인 '백분율'이 맞다. 조사 '만'도 '1%만'처럼 앞말에 붙여 쓰므로 문장 전체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준말 '뺏기다'를 틀렸다고 보기 쉽지만 실제 오류는 '나 자리'이다. ③에서는 발음이 비슷한 '번번히'와 '번번이'를 혼동하기 쉽고, ④에서는 '백분률'로 잘못 적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명사를 꾸미는 말의 형태,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이/-히' 부사의 표기, '률/율' 앞말의 끝소리를 차례로 확인한다. '률' 앞말이 모음이나 'ㄴ' 받침으로 끝나면 '율'을 쓴다.

암기 포인트

내 자리, 하루 동안, 번번이, 백분율로 기억한다.

NoteBase

8. 아래 글의 (㉠)과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접속어로 옳은 것은?

> 히포크라테스가 분류한 네 가지 기질이나 성격 유형에 대한 고대의 개념으로 성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1884년 『포트나이트리 리뷰』에 실렸던 프랜시스 골턴 경의 논문 「성격의 측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
>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은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연 선택 이론이 인간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학설이 될 것이라는 그의 직관은 옳았다.

	㉠	㉡
①	그래서	그리하여
②	그리고	그래서
③	그러나	따라서
④	그런데	그리고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대조와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그러나'와 '그런데'는 앞 내용과 뒤 내용을 대조하거나 전환할 때 쓰이고, '따라서', '그래서', '그리하여'는 앞 내용을 원인이나 근거로 삼아 뒤의 결과를 이끌 때 쓰인다. '그리고'는 내용을 대등하게 덧붙이는 접속어이다. 이 글에서 ㉠의 앞에는 골턴이 진화의 영향을 인간에게도 적용했다는 설명이 나오고, 뒤에는 그의 관념이 시대적 편견을 지녔다는 한계가 제시되므로 대조 관계이다. ㉡의 앞에 제시된 시대적 편견은 오늘날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이유이므로 인과 관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의 '그래서'는 앞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뒤의 결과를 이끄는 말이므로, 골턴의 업적 뒤에 그 관념의 한계를 대조하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의 '그래서'이며, 올바르게는 '그러나'이다.
② X — ㉠의 '그리고'는 내용을 단순히 덧붙이는 말이므로, 앞의 업적과 뒤의 한계를 선명하게 대조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의 '그리고'이며, 올바르게는 '그러나'이다. ㉡의 '그래서'는 인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두 빈칸의 조합 전체는 적절하지 않다.
③ O — ㉠의 '그러나'는 골턴의 업적과 관념의 한계를 대조하고, ㉡의 '따라서'는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 때문에 오늘날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인과 관계를 드러낸다.
④ X — ㉡의 '그리고'는 두 내용을 대등하게 나열하지만, 여기서는 시대적 편견이 오늘날 설득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틀린 표현은 ㉡의 '그리고'이며, 올바르게는 '따라서'이다. 따라서 적절한 조합은 ㉠ '그러나', ㉡ '따라서'이다.

오답 포인트

㉡의 두 문장을 모두 골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보고 단순 나열 관계로 처리하기 쉽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지님'은 '오늘날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짐'의 이유이므로 ㉡에는 결과를 이끄는 접속어가 필요하다. 또한 ㉠은 골턴의 업적에서 한계로 평가 방향이 바뀌므로 첨가나 인과가 아니라 대조 관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바로 앞뒤의 평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대조 접속어를 찾고, 앞 문장이 원인·근거이며 뒤 문장이 그 결과이면 인과 접속어를 찾는다. 각 빈칸을 따로 판단한 뒤 두 관계를 모두 만족하는 조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평가 방향의 반전은 '그러나', 원인에서 결과로의 연결은 '따라서'이다.

NoteBase

9. 밑줄 친 단어 중 외래어 표기법이 모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은?
① 리모콘에 있는 버턴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② 벤젠이나 시너, 알코올 등으로 닦지 마세요.
③ 전원 코드를 컨센트에 바르게 연결해 주세요.
④ 썬루프 안쪽은 수돗물을 적신 스폰지로 닦아냅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상에서 자주 잘못 쓰는 외래어를 표준 외래어 표기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발문이 '모두 맞는' 문장을 요구하므로 밑줄 친 단어가 하나라도 틀리면 그 선지는 오답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적는 통일된 원칙이다. 이 문항의 표준 표기는 '리모컨, 버튼, 벤젠, 시너, 알코올, 코드, 콘센트, 선루프, 스펀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버튼'은 맞는 표기이지만 '리모콘'이 틀린 표기이다. '리모콘'의 올바른 표기는 '리모컨'이다.
② O — '벤젠', '시너', '알코올'은 모두 표준 외래어 표기에 맞는다. 따라서 밑줄 친 단어가 모두 맞는 문장이다.
③ X — '코드'는 맞지만 '컨센트'가 틀린 표기이다. 올바른 표기는 '콘센트'이다.
④ X — '썬루프'와 '스폰지'가 틀린 표기이다. 올바른 표기는 각각 '선루프'와 '스펀지'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코드'가 익숙한 올바른 표기라서 문장 전체도 맞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컨센트'를 '콘센트'로 적어야 한다. ①과 ④도 실제 발음이나 관습적 표기에 끌리면 '리모콘·썬루프·스폰지'를 표준 표기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두 맞는' 유형에서는 각 선지의 밑줄 친 단어를 하나씩 표준 표기로 바꾸어 대조한다. 틀린 표기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바로 X로 판단하고, 모든 단어가 맞는 선지만 고른다.

암기 포인트

리모컨·버튼, 콘센트, 선루프·스펀지로 묶어 기억한다. 벤젠·시너·알코올은 모두 맞는 표기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生涯 엇더ᄒᆞᆫ고
녯사ᄅᆞᆷ 風流ᄅᆞᆯ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 男子 몸이 날만 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
山林에 뭇쳐 이셔 至樂을 ᄆᆞᄅᆞᆯ 것가
數間 茅屋을 碧溪水 앏픠두고
松竹 鬱鬱裏예 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 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ᄂᆞᆫ 夕陽裏예 퓌여 잇고
綠楊芳草ᄂᆞᆫ 細雨 中에 프르도다
칼로 ᄆᆞᆯ아 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헌ᄉᆞᄅᆞᆸ다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春氣ᄅᆞᆯ 못내 계워
소ᄅᆡ마다 嬌態로다
物我一體어니 興이ᄋᆡ 다ᄅᆞᆯ소냐
柴扉예 거러 보고 亭子애 안자 보니
逍遙吟詠ᄒᆞ야 山日이 寂寂ᄒᆞᆫᄃᆡ
閒中眞味ᄅᆞᆯ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 구경 가쟈스라

- 정극인, 「상춘곡」 -

1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홍진에 묻힌 분'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다.
② '나'의 공간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이웃'을 끌어들임으로써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고 있다.
④ 서사-본사-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음을 삽입하여 흥을 돋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 시가에서 화자의 시선과 공간 이동, 말하기 방식, 청자의 기능, 표현 방식이 시상 전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는 화자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새로 보이는 대상과 그에 대한 정서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초가집 주변의 봄 풍경을 바라보던 화자가 '柴扉에 거러 보고 亭子에 안자 보니'라고 하며 사립문과 정자로 움직이고, 그 이동에 따라 산과 들의 경치로 시야를 넓힌다.

선지별 해설

① X — '홍진에 묻힌 분네'에게 '이 내 生涯 엇더한고'라고 묻지만 상대의 대답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속세의 사람들에게 자연 속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독백적·수사적 물음이지,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이 아니다. 틀린 표현 '묻고 대답하는 형식'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독백적·수사적 물음의 형식'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화자는 초가집 주변의 봄 경치를 노래한 뒤 '柴扉에 거러 보고 亭子에 안자 보니'라고 하며 사립문과 정자로 이동한다. 이러한 공간 이동에 따라 시야가 산과 들로 확대되고 새로운 경관이 이어지므로 '나'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③ X — 마지막의 '이바 니웃드라 山水 구경 가자스라'는 이웃에게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자고 권하는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산수의 흥취와 풍류를 함께 누리자고 청하는 말이다. 틀린 표현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는 '봄의 아름다움과 자연 속 풍류를 이웃과 함께 향유'로 고쳐야 한다.
④ X — '가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를 못내 계워 / 소리마다 嬌態로다'는 반복되는 후렴이나 여음이 아니라, 봄기운에 겨워 우는 새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봄의 생동감과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는 본문 내용이다. 틀린 표현 '여음을 삽입하여 흥을 돋운다'는 '새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봄의 생동감과 화자의 흥취를 드러낸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청자를 부르고 질문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문답 형식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문답 형식이라면 상대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③은 '이웃'을 끌어들인 효과를 객관화로 잘못 연결하고, ④는 괄호 안 구절을 반복되는 여음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그 뒤에 제시되는 경관을 연결한다. '걷다', '앉다', '보다'처럼 위치와 시선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 뒤에 새로운 풍경이 이어지면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판단한다. 질문에 상대의 답이 있는지는 문답 형식 여부를, 같은 구절이 일정하게 반복되는지는 여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사립문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본다: 공간 이동에 따라 시야와 시상이 확대된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生涯 엇더ᄒᆞᆫ고
녯사ᄅᆞᆷ 風流ᄅᆞᆯ 미출가 ᄆᆞᆺ 미출가
天地間 男子 몸이 날만 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
山林에 뭇쳐 이셔 至樂을 ᄆᆞᄅᆞᆯ 것가
數間 茅屋을 碧溪水 앏픠두고
松竹 鬱鬱裏예 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 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ᄂᆞᆫ 夕陽裏예 퓌여 잇고
綠楊芳草ᄂᆞᆫ 細雨 中에 프르도다
칼로 ᄆᆞᆯ아 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헌ᄉᆞᄅᆞᆸ다
㈎수플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春氣ᄅᆞᆯ ᄆᆞᆺ내 계워
소ᄅᆡ마다 嬌態로다
物我一體어니 興이야 다ᄅᆞᆯ소냐
柴扉예 거러 보고 亭子애 안자 보니
逍遙吟詠ᄒᆞ야 山日이 寂寂ᄒᆞᆫᄃᆡ
閒中眞味ᄅᆞᆯ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 구경 가쟈스라

- 정극인, 「상춘곡」 -

11. ㈎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와 산수자연 사이에 가로놓인 방해물에 대한 불만
② 산수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과 합일하는 흥겨움의 마음
③ 산수자연의 즐거움을 혼자서만 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④ 산수자연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와 구절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를 근거로 자연을 대하는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사례 정리

핵심 시구: 새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해 아름답게 울고, 화자는 그 소리를 흥겹게 받아들인다.
판단에 중요한 표현: '춘기를 못내 계워', '교태로다', '物我一體', '흥이 다를쏘냐'이다.
화자는 자신과 자연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봄의 흥취를 누리고 있다.

핵심 개념

물아일체는 자연물인 '물'과 화자인 '아'의 경계가 사라져 하나가 된 상태를 뜻한다. 이 시구에서는 새의 봄기운과 흥취를 화자도 함께 느끼므로 자연과의 합일에서 오는 흥겨움이 드러난다.

적용 기준

화자의 정서는 감정을 직접 나타내는 말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흥'은 즐거움을 직접 드러내고, '物我一體'는 자연과의 합일을 나타내므로 불만·안타까움·회한이 아니라 흥겨움으로 판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로놓인 방해물에 대한 불만'은 시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방해물에 대한 불만'이며, 올바르게는 자연과의 경계가 사라진 물아일체의 흥겨움이다.
② O — '物我一體'는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된 상태이고, '흥이 다를쏘냐'는 자연의 흥취와 화자의 흥취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산수자연의 존재들과 합일하는 흥겨운 마음이 적절하다.
③ X — 화자는 자연의 즐거움을 '혼자만' 누린다고 여기거나 이를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혼자서만 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며, 올바르게는 자연과 흥을 함께 누리는 합일의 기쁨이다.
④ X — 화자는 자연에 몰입하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物我一體'의 경지에서 흥을 느끼고 있다. 틀린 표현은 '몰입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이며, 올바르게는 자연에 온전히 어우러진 데서 오는 흥겨움이다.

오답 포인트

새가 우는 장면을 슬픔이나 외로움으로 해석하면 ③이나 ④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춘기를 못내 계워'는 봄기운이 넘치는 상태이고, '교태'와 '흥'도 즐거운 분위기를 강화한다. 특히 '物我一體'는 화자가 자연과 분리되거나 소외된 상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적 정서를 묻는 문제에서는 감정어, 자연과 화자의 관계, 설의적 표현의 의미를 차례로 확인한다. 이 작품에서는 '흥'으로 정서의 방향을 잡고 '物我一體'로 자연과의 합일 여부를 확정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物我一體 + 흥'은 자연과 하나 되어 누리는 흥겨움이다.

NoteBase

1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잠자코 앉아 있노라면 한 큼직한 사람이 느릿느릿 돌계단을 밟고 올라와서는 탑을 지나 종루의 문을 열고 무거운 망치를 꺼내어 들었다. 그는 한참동안 멍하니 서서는 음향에 귀를 ㉠ 기울였다. 음향이 끝나자마자 그는 망치를 ㉡ 매어 들며 큰 종을 두들겼다. 그 소리는 산까지 울리며 떨리었다. 우리는 그 ㉢ 종루지기를 둘러싸고 모여 몇 번이나 치는지 헤아려 보았다. 그러면 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으로 다시 열까지 셀 수 있도록 곧 왼손의 ㉤ 엄지손가락을 굽혔다.

① ㉠: '기울다'의 피동사이다.
② ㉡: '메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③ ㉢: 접미사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뜻한다.
④ ㉤: 가장 짧고 굵은 손가락으로 '무지(拇指)'라고도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파생어의 문법적 성격, 문맥에 맞는 표기, 접미사의 뜻, 신체 부위의 명칭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발문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핵심 개념

피동사는 주어가 다른 대상의 동작을 입는 뜻을 나타내고, 사동사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이나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뜻을 나타낸다. '기울이다'는 '기울다'에 사동의 뜻이 더해진 말이며, '귀를 기울이다'는 주의를 집중하여 듣는다는 뜻이다. 또한 '메다'는 물건을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는다는 뜻이고, '매다'는 끈이나 줄로 묶는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기울였다’의 기본형 ‘기울이다’는 ‘기울다’의 피동사가 아니라 사동사이다. ‘귀를 기울였다’에서는 귀가 기울도록 한다는 구조에서 나아가 주의를 집중하여 들었다는 뜻으로 쓰였다. 틀린 표현 ‘피동사’는 ‘사동사’로 고쳐야 한다.
② O — 문맥상 망치를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 든다는 뜻이므로 ‘매어’가 아니라 ‘메다’의 활용형인 ‘메어’로 표기해야 한다. ‘매다’는 끈이나 줄로 묶는 경우에 쓰인다.
③ O — 접미사 ‘-지기’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대상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한다. 따라서 ‘종루지기’는 종루를 지키는 사람을 뜻한다.
④ O — 엄지손가락은 다섯 손가락 가운데 가장 짧고 굵은 손가락이며, 한자어로 ‘무지(拇指)’라고도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기울이다’를 ‘기울다’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동사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기울다’가 스스로 한쪽으로 비스듬해지는 상태라면 ‘기울이다’는 어떤 대상을 그렇게 되게 하는 사동의 뜻을 나타낸다. ②에서는 발음이 비슷한 ‘매다’와 ‘메다’를 문맥으로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파생어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지, 다른 대상에게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맞춤법 선지는 해당 단어를 문맥 속 기본형과 뜻으로 되돌려 판단하고, 접미사와 명칭 선지는 그 정의가 대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기울다 → 기울이다’는 사동이고, ‘메다’는 어깨에 걸치는 것, ‘매다’는 끈으로 묶는 것이다.

NoteBase

13. 다음 로마자 표기법 중 옳은 것은?
① 순대 sundai
② 광희문 Gwanghimun
③ 왕십리 Wangsibni
④ 정릉 Jeongneung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모음과 자음을 적고, 실제 발음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를 표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른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ㅐ'는 ae로 적고, '왕십리'처럼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 말은 발음 [왕심니]을 반영하여 Wangsimni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순대 sundai'에서 sundai가 틀렸다. 'ㅐ'는 ae로 적으므로 올바른 표기는 sundae이다.
② X — '광희문 Gwanghimun'에서 hi가 틀렸다. '희'는 hui로 적으므로 올바른 표기는 Gwanghuimun이다.
③ X — '왕십리 Wangsibni'에서 Wangsibni가 틀렸다. '왕십리'는 자음 동화에 따라 [왕심니]로 발음하므로 올바른 표기는 Wangsimni이다.
④ O — '정릉'은 발음에 따라 Jeongneung으로 적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의 'ㅐ'를 ai로 적는 오류와 ③에서 철자 '십리'를 그대로 옮기는 오류가 핵심 함정이다. 또한 ②에서는 '희'를 hi가 아니라 hui로 적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모음의 대응을 확인한 뒤 실제 표준 발음을 적용한다. 특히 'ㅐ→ae', '희→hui'를 확인하고, 자음 동화가 일어난 지명은 변화된 발음을 로마자로 옮긴다.

암기 포인트

순대는 sundae, 광희문은 Gwanghuimun, 왕십리는 발음 [왕심니]를 따라 Wangsimni, 정릉은 Jeongneung이다.

NoteBase

14. 대괄호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말소리[音聲]의 특징을 알아보자.
② 모두가 건물[에, 로, 까지] 달려갔다.
③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이상 전집3(1958), 235쪽 참조]
④ 난 그 이야기[합격 소식]를 듣고 미소 짓기 시작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대괄호와 소괄호의 쓰임을 구별하고, 문맥에 맞는 문장 부호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괄호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이거나, 원문에 설명·논평을 덧붙이거나, 괄호 안에 다시 괄호가 필요할 때 바깥쪽 괄호로 쓴다. 반면 여러 표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나열할 때에는 소괄호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말소리'라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音聲'을 함께 보였으므로 대괄호의 사용이 적절하다.
② X — '에, 로, 까지'는 문장에 선택하여 넣을 수 있는 조사들이므로 대괄호를 쓴 부분이 잘못되었다. '모두가 건물(에, 로, 까지) 달려갔다.'와 같이 소괄호로 고쳐야 한다.
③ O — 문장의 출처와 참고 정보를 덧붙였고, 그 안에 연도 표시인 '(1958)'이 있으므로 바깥쪽에 대괄호를 쓴 것이 적절하다.
④ O — 앞의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합격 소식'을 뜻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므로 대괄호의 사용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조사들은 앞말을 풀이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바꾸어 넣을 수 있는 선택 요소이다. 대괄호의 '설명 덧붙이기' 용법과 소괄호의 '선택 요소 제시' 용법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 속 내용의 역할을 먼저 확인한다. 한자어 병기·설명이나 논평·괄호의 중첩이면 대괄호로, 생략 또는 선택 가능한 요소의 제시이면 소괄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괄호는 한자 병기·설명 덧붙이기·괄호 중첩, 소괄호는 선택 요소 제시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17)

(가) (㉠)의 확산은 1930년에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 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했다.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

(나) 하지만 뉴욕과 경성의 (㉠)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경성의 모던걸이 입은 패션은 동일해도, 그네들 주변의 풍경은 근대적인 빌딩 숲과 초가집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경성 모던걸의 (㉠)은 이 같은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 (㉠)은 "일초 동안에 지구를 네박휘"를 돈다는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1931년에 이르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하던 파자마라는 '침의패션'은 곧 바로 서울에서도 (㉠)했다. 서구에서 시작한 (㉠)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 거의 동시적이었다.

(라) 폐쇄된 규방에만 있었던 조선의 여성이 신문과 라디오로,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부터,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지구에 매달려 사는 자기 자신에도 큰 파동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규방 여성이 근대여성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속성 세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디어는 식민지 조선 여성에게 세계적인 불안도 함께 안겨주었다. 자본주의적 근대의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동시에 던져 주었던 것이다.

(마) 근대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에 근대가 잠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미디어 덕분이었다. 미디어는 근대를 향한 이행을 식민지 조선에 요구했고, 단기간에 조선 사람들을 '속성 세계인'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15. 문맥상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성행(盛行)
② 편승(便乘)
③ 기승(氣勝)
④ 유행(流行)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문장의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모든 문맥에서 패션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 널리 행해지는 현상을 뜻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행은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의복 등이 한동안 사회에 널리 퍼지는 현상이다. 성행은 어떤 일이 한창 잘되는 것, 편승은 남의 세력이나 흐름을 이용해 따르는 것, 기승은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해지는 것을 뜻한다. 지문의 ㉠은 뉴욕·파리·경성·서울에서 패션이 빠르게 퍼지는 현상을 일관되게 가리키므로 '유행'이 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성행'은 어떤 일이 한창 잘되는 것을 뜻한다. '성행의 확산', '뉴욕과 경성의 성행'은 무엇이 성행하는지 드러나지 않아 문맥에 맞지 않는다. '성행'이 아니라 패션이 널리 퍼지는 '유행'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편승'은 남이 탄 교통수단에 같이 타거나, 남의 세력·흐름을 이용하여 따르는 것을 뜻한다. 지문은 어떤 흐름에 기대어 이익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패션 자체가 퍼지는 현상을 말하므로 '편승'이 아니라 '유행'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기승'은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해지는 것을 뜻하며 주로 '기승을 부리다'처럼 쓰인다. '파자마가 기승하다'는 패션이 널리 퍼진다는 뜻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기승'이 아니라 '유행'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유행'은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의복 등이 한동안 널리 퍼지는 현상이다. '유행의 확산', '뉴욕과 경성의 유행', '파자마가 유행하다'가 모두 자연스럽고, 근대 패션이 도시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는 지문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성행'과 '기승'도 세력이 커지는 느낌을 주지만, 이 문항에서는 '확산', 여러 도시의 패션, '파자마가 ㉠하다'라는 모든 결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 문장에만 어울리는 비슷한 말을 고르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빈칸이 여러 번 나오면 후보 단어를 모든 자리에 차례로 넣어 본다. 대상이 의복·사상·행동 양식이고 '퍼지다', '확산',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다'와 연결되면 '유행'을 우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행은 널리 퍼짐, 성행은 한창 잘됨, 편승은 흐름을 이용함, 기승은 세력이 왕성해짐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17)

(가) (㉠)의 확산은 1930년에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 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했다.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

(나) 하지만 뉴욕과 경성의 (㉠)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경성의 모던걸이 입은 패션은 동일해도, 그네들 주변의 풍경은 근대적인 빌딩 숲과 초가집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경성 모던걸의 (㉠)은 이 같은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 (㉠)은 "일초 동안에 지구를 네박휘"를 돈다는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1931년에 이르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하던 파자마라는 '침의패션'은 곧 바로 서울에서도 (㉠)했다. 서구에서 시작한 (㉠)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 거의 동시적이었다.

(라) 폐쇄된 규방에만 있었던 조선의 여성이 신문과 라디오로,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부터,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지구에 매달려 사는 자기 자신에도 큰 파동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규방 여성이 근대여성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속성 세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디어는 식민지 조선 여성에게 세계적인 불안도 함께 안겨주었다. 자본주의적 근대의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동시에 던져 주었던 것이다.

(마) 근대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에 근대가 잠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미디어 덕분이었다. 미디어는 근대를 향한 이행을 식민지 조선에 요구했고, 단기간에 조선 사람들을 '속성 세계인'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16. 내용에 따른 (나)~(마)의 순서 배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다)-(라)-(마)
② (나)-(라)-(다)-(마)
③ (다)-(나)-(마)-(라)
④ (마)-(다)-(라)-(나)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앞 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예시, 역접 표현, 반복되는 핵심어를 근거로 문단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다) → (나) → (마) → (라)
1. (다): (가)에서 말한 유행의 빠른 확산을 1931년 파자마 유행의 사례로 구체화한다.
2. (나): '하지만'으로 앞의 동시적 유행과 달리 뉴욕과 경성의 유행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는 차이를 제시한다.
3. (마): 미디어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기고 조선 사람을 '속성 세계인'으로 바꾸었다는 역할을 설명한다.
4. (라): 앞 문단의 '속성 세계인'을 이어 받아 조선 여성이 신문과 라디오로 세계의 동태를 접한 과정과, 미디어가 준 환상과 불안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왜 이 순서인가: (다)는 (가)의 빠른 확산을 예시로 뒷받침하고, (나)의 '하지만'은 그 유행의 차이로 논의를 전환한다. 이어 (마)의 '속성 세계인'이라는 결론이 (라)에서 반복·구체화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의 일반적 설명을 파자마 유행의 사례로 구체화하는 (다)가 먼저 오고, 그 뒤 (나)가 뉴욕과 경성의 유행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는 차이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라)는 (마)의 '속성 세계인'을 이어 설명하므로 (라)보다 (마)가 먼저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다)-(나)-(마)-(라)이다.
② X — (나)의 '하지만'은 (가)의 동시적 유행이라는 일반 진술과도 대비될 수 있지만, (다)가 먼저 파자마 유행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뒤 (나)가 뉴욕과 경성의 차이로 논의를 전환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올바르게는 (다)-(나)-(마)-(라)이다.
③ O — (가)의 일반적 설명을 (다)의 사례가 구체화하고, (나)가 '하지만'으로 차이를 제시한다. 그 뒤 (마)의 '속성 세계인'이라는 설명을 (라)가 조선 여성의 사례와 미디어의 양면성으로 이어 간다.
④ X — (마)는 미디어의 역할을 요약한 문단이므로 유행의 빠른 확산을 구체화하는 (다)와 뉴욕·경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나)보다 앞설 수 없다. 올바르게는 (다)-(나)-(마)-(라)이다.

오답 포인트

(나)의 '하지만'만 보고 곧바로 (가) 뒤에 놓기 쉽다. 그러나 (가)의 '빠른 속도'와 '거의 동시에'를 파자마 사례로 구체화하는 (다)가 먼저 오고, 그 공통성에 반전을 주는 (나)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마)와 (라)는 '속성 세계인'이라는 반복어로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단 순서 문제에서는 앞 문단의 일반 진술을 받는 구체적 사례를 먼저 찾고, '하지만'과 같은 접속어가 무엇과 대비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앞 문단의 끝말이 다음 문단에서 반복·구체화되는 연결을 점검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일반 설명 → 사례 → 역접 전환 → 핵심어 반복의 흐름으로 문단 순서를 잡는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17)

(가) (㉠)의 확산은 1930년에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 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했다.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

(나) 하지만 뉴욕과 경성의 (㉠)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경성의 모던걸이 입은 패션은 동일해도, 그네들 주변의 풍경은 근대적인 빌딩 숲과 초가집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경성 모던걸의 (㉠)은 이 같은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 (㉠)은 "일초 동안에 지구를 네박휘"를 돈다는 전파만큼이나 빨라서, 1931년에 이르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하던 파자마라는 '침의패션'은 곧 바로 서울에서도 (㉠)했다. 서구에서 시작한 (㉠)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 거의 동시적이었다.

(라) 폐쇄된 규방에만 있었던 조선의 여성이 신문과 라디오로,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부터,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지구에 매달려 사는 자기 자신에도 큰 파동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규방 여성이 근대여성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속성 세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디어는 식민지 조선 여성에게 세계적인 불안도 함께 안겨주었다. 자본주의적 근대의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동시에 던져 주었던 것이다.

(마) 근대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에 근대가 잠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미디어 덕분이었다. 미디어는 근대를 향한 이행을 식민지 조선에 요구했고, 단기간에 조선 사람들을 '속성 세계인'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17.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던걸의 패션은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과 동일했다.

② 신문이나 라디오는 조선 사람이 속성 세계인이 되도록 해 주었다.

③ 파자마 '침의패션'은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④ 식민지 조선 여성은 근대적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함께 안고 있었다.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적 유행과 미디어의 확산이 식민지 조선에 거의 동시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다. 특히 유행의 전파 경로와 최초 발생 장소를 구별해야 한다.

핵심 개념

글에서 '동시성'은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적 유행과 정보가 신문·라디오 등의 미디어와 근대 과학기술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경성까지 전해지는 현상을 뜻한다. 다만 뉴욕·할리우드와 경성의 외양이 비슷해도, 경성에는 근대와 전근대가 공존했으므로 그 의미까지 완전히 같았던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나)는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과 경성의 모던걸이 입은 패션이 동일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모던걸의 패션이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의 패션과 동일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O — (라)는 신문과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조선 여성이 짧은 시간 안에 '속성 세계인'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신문과 라디오가 조선 사람의 세계인화를 촉진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이다. (다)는 파자마 '침의패션'이 서구에서 시작하여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었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침의패션은 뉴욕이나 할리우드 등 서구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달되었다'이다. 일본은 전파 경로에 포함될 뿐 최초 발생지가 아니다.

④ O — (라)는 미디어가 식민지 조선 여성에게 자본주의적 근대의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동시에 안겨 주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근대적 환상과 불안을 함께 안고 있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었다'는 전파 경로를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발생 순서로 바꾼 데 있다. '거쳐'는 중간 전달지를 뜻할 뿐 최초 발생지를 뜻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의 장소 관계를 '시작점-경유지-도착지'로 나누어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서구에서 시작-일본을 경유-한국에 전달'의 순서이며, 거의 동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발생 장소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서구에서 시작, 일본을 경유, 한국에 전달: 경유지는 발생지가 아니다.

NoteBase

18. 다음 밑줄 친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어인 것은?
① 비지땀을 흘리며 공부하는구나.
② 이분을 사랑채로 안내해 드려라.
③ 이렇게 큰 쌍동밤을 본 적 있어?
④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합성어를 이루는 각 구성 성분의 어종이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고,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합성어의 구성 성분이 모두 고유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단어 전체의 인상이나 뜻이 아니라 각 성분의 어원을 따져야 한다. 고유어끼리 결합한 말과 한자어·고유어가 결합한 혼종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비지땀'은 고유어 '비지'와 고유어 '땀'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구성 성분이 모두 고유어이다.

② X — '사랑채'의 '사랑'은 한자어 '사랑(舍廊)'이고 '채'는 고유어이다. 틀린 부분은 구성 성분이 모두 고유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X — '쌍동밤'의 '쌍동'은 한자어 '쌍동(雙童)'이고 '밤'은 고유어이다. 틀린 부분은 구성 성분이 모두 고유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X — '장작불'의 '장작'은 한자어 '장작(長斫)'이고 '불'은 고유어이다. 틀린 부분은 구성 성분이 모두 고유어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포인트

'사랑', '쌍동', '장작'은 일상에서 자주 쓰여 고유어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각각 한자어 '舍廊', '雙童', '長斫'이므로 뒤의 고유어와 결합한 ②~④는 구성 성분이 모두 고유어인 말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성어를 앞말과 뒷말로 나눈 뒤 각 성분에 대응하는 한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한 성분이라도 한자어이면 '구성 성분이 모두 고유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비지+땀은 고유어+고유어이고, 사랑(舍廊)+채·쌍동(雙童)+밤·장작(長斫)+불은 한자어+고유어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 "아뇨, 고향에 갑니다." / "고향이 어딘데……." / "삼포라구 아십니까?" /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 고기잡이나 하구 ㉡ 감자나 매는데요." /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 "뭣 땜에요?" / "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 "그럼 ㉢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 "바다 위로 ㉣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잊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19. 문맥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밑줄 친 소재가 문맥에서 변화 이전의 삼포와 개발로 달라진 삼포 중 어느 모습을 나타내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ㄱ '고기잡이', ㄴ '감자', ㄷ '나룻배'는 삼포의 소박하고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반면 ㄹ '신작로'는 방둑, 트럭, 관광호텔, 공사판과 함께 개발로 변해 버린 삼포의 새로운 모습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ㄱ X

'고기잡이'가 문맥적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은 틀리다. 고기잡이는 개발 이전 삼포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업을 나타내므로 ㄴ, ㄷ과 같은 성격이다. 올바르게는 '고기잡이는 변화 이전 삼포의 소박한 생활상을 보여 준다'이다.

② ㄴ X

'감자'가 문맥적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은 틀리다. 감자를 매는 일은 개발 이전 삼포의 소박한 농촌 생활을 나타내므로 ㄱ, ㄷ과 같은 성격이다. 올바르게는 '감자는 변화 이전 삼포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보여 준다'이다.

③ ㄷ X

'나룻배'가 문맥적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은 틀리다. 나룻배는 신작로가 생기기 전 삼포에서 이용하던 옛 교통수단이므로 ㄱ, ㄴ과 함께 과거의 삼포를 나타낸다. 올바르게는 '나룻배는 개발 이전 삼포의 모습을 보여 준다'이다.

④ ㄹ O

'신작로'는 새로 난 큰길로, 방둑과 트럭 등과 함께 개발된 현재의 삼포를 나타낸다. 변화 이전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ㄱ, ㄴ, ㄷ과 문맥적 성격이 다르다.

오답 포인트

ㄷ '나룻배'도 없어졌다고 언급되므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룻배 자체는 사라진 옛 삼포의 생활상을 환기하고, ㄹ '신작로'가 그 옛 모습을 밀어낸 개발과 변화의 표지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재의 사전적 종류만 보지 않고 지문에서 그 소재가 어느 시간대와 가치에 연결되는지 판단한다. 이 지문에서는 '옛 삼포의 전통적 삶'과 '개발된 현재의 삼포'로 묶은 뒤, 홀로 후자에 속하는 소재를 찾는다.

암기 포인트

고기잡이·감자·나룻배는 옛 삼포, 신작로는 개발된 삼포이다.

NoteBas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 "아뇨, 고향에 갑니다." / "고향이 어딘데……." / "삼포라구 아십니까?" /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 고기잡이나 하구 ㉡ 감자나 매는데요." /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 / "뭣 땜에요?" / "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 "그럼 ㉢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 "바다 위로 ㉣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잊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20. 이 글의 주제를 표현한 시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③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④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대화와 정서를 바탕으로 작품의 중심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함축한 시구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제는 작품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중심 생각이나 정서이다. 이 글에서는 정 씨가 고향의 삼포로 돌아가지만 육지와 바다 모두 개발되어 옛 모습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상실감을 느낀다. 따라서 핵심 주제는 개발로 사라진 고향과 삶의 터전에 대한 상실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빼앗긴 현실에서 회복과 희망이 가능한지를 묻는 시구이다. 이 글은 봄의 도래나 현실 회복이 아니라 개발로 고향이 사라진 상실감을 중심으로 한다. 틀린 표현은 '봄은 오는가'이며, 올바르게는 '개발로 옛 모습을 잃은 고향을 되찾을 수 있는가'라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② X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이별의 슬픔을 참겠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 글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죽음이 제시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이며, 올바르게는 '사라진 고향을 마주하며 상실감을 느낀다'가 되어야 한다.
③ O —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는 소중히 여기던 장소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과 그에 따른 상실감을 나타낸다. 육지에는 관광호텔이 들어서고 바다에는 방둑이 쌓여 정 씨가 기억하던 삼포가 없어졌다는 내용과 가장 잘 맞는다.
④ X —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떠난 임을 마음속으로는 보내지 못하는 이별의 정서를 나타낸다. 이 글의 상실 대상은 임이 아니라 개발로 변해 버린 고향이다. 틀린 표현은 '님'이며, 올바르게는 '고향은 사라졌지만 나는 옛 고향을 잊지 못하였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정 씨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점만 보고 ④의 이별 정서와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무엇을 잃었는지를 확인하면 대상은 '님'이 아니라 개발로 사라진 고향이며, '사랑했던 자리'가 모두 '폐허'가 되었다는 ③이 지문의 상황과 정확히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이 무엇을 잃었고 그 때문에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먼저 정리한 뒤, 시구의 대상과 상황이 모두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잃은 대상=옛 고향과 삶의 터전', '정서=상실감'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개발로 사라진 고향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라는 시구와 연결된다.

NoteBase

21. 다음 시의 주된 정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 – 乙支文德, 「與隋將于仲文」 –

① 悠悠自適
② 戀戀不忘
③ 得意滿面
④ 山紫水明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시의 표면적 표현과 그 속에 담긴 반어를 함께 살펴 화자의 주된 정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시는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이다. 앞의 두 구에서 상대의 계책과 지략을 높이 평가하는 듯하지만, 뒤의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말에는 물러가라는 조롱과 압박이 담겨 있다. 이러한 반어적 태도에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승리감이 드러나므로 주된 정조는 '득의만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유유자적은 속세를 떠나 여유롭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뜻한다. 이 시는 한가로운 생활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적장에게 철수를 권하며 승리의 자신감을 드러낸 시이므로, 올바른 표현은 '득의만면'이다.
② X — 연연불망은 어떤 대상에 미련을 두어 잊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 시에는 그리움이나 미련이 아니라 적장을 조롱하고 압박하는 태도가 나타나므로, 올바른 표현은 '득의만면'이다.
③ O — 득의만면은 뜻을 이루어 기쁜 기색이 얼굴에 가득한 상태를 뜻한다. 상대의 능력을 반어적으로 추켜세운 뒤 이제 만족하고 물러가라고 말하는 데서 을지문덕의 승리감과 자신감이 드러난다.
④ X — 산자수명은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다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른다. 이 시의 '천문'과 '지리'는 상대의 계책을 반어적으로 평가하는 말이지 산수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말이 아니므로, 올바른 표현은 '득의만면'이다.

오답 포인트

'만족할 줄 알고 그만두라'는 표현만 보고 유유자적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말은 화자 자신의 한가로운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적장에게 철수를 요구하는 반어적 압박이다. 또한 '천문'과 '지리'를 자연 경관으로 오해하면 산자수명을 고를 수 있으나, 문맥상 이는 전쟁의 계책과 지략을 가리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시의 정조는 특정 낱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화 상황과 반어 여부를 함께 살핀다. 상대를 칭찬하는 듯하면서 그만두고 물러가라고 한다면, 표면의 칭찬보다 그 이면의 조롱·자신감·승리감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적장을 반어적으로 칭찬하며 철수를 권함 → 승리의 자신감 → 득의만면이다.

NoteBase

22. 다음 예문의 밑줄 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집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는 간절한 요청은 _____㉠_____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
>
> –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

①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어서
②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③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드러난 인물의 속마음과 관용 표현의 의미가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혼수를 간소하게 하자는 상대의 요청은 화자가 먼저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내심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다.

핵심 개념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감히 청하지는 못할지라도 본래부터 바라던 바라는 뜻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주된 것보다 부수적인 것이 더 크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를 뜻한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더 잘 대하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에게 더 큰 허물이 있으면서 남의 작은 허물을 탓한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은 먼저 청하기는 어려웠으나 본래 바라던 바라는 뜻이다. 혼수 부담을 덜고 싶던 화자에게 상대가 먼저 혼수 간소화를 요청한 상황과 정확히 맞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이다. 이는 부수적인 것이 주된 것보다 더 커진 상황을 가리키지만, 제시문은 뜻밖에 바라던 요청을 받아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이 문맥에서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서'로 고쳐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이다. 이는 미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해 주는 태도를 가리키지만, 제시문에는 미운 상대를 대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맥에서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서'로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이다. 이는 허물이 더 큰 사람이 허물이 작은 사람을 나무라는 상황을 가리키지만, 제시문에는 상대를 비난하는 관계가 없다. 이 문맥에서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혼수'라는 말만 보고 비용의 크기를 다루는 ②를 고르면 안 된다. 빈칸 뒤의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에 주목하면, 상대의 요청이 화자가 속으로 바라던 일을 대신 말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에서 인물의 처지와 감정 변화를 먼저 확인한다. 자신이 먼저 청하기 어려운 일을 상대가 제안하여 부담이 해소되었다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불감청은 감히 청하지 못함, 고소원은 본래 바라던 바이다.

NoteBase

23.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차운 산 바위 위에
> 하늘은 멀어
> 산새가 구슬피
> 울음 운다
>
> 구름 흘러가는
> 물길은 칠백 리
>
> 나그네 긴 소매
> 꽃잎에 젖어
> 술 익는 강마을의
> 저녁노을이여
>
>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 꽃은 지리라
>
> 다정하고 한 많음도
> 병인 양하여
> 달빛 아래 고요히
> 흔들리며 가노니……
>
> – 조지훈, 「완화삼」 –

① '구름, 물길'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암시한다.
② '강마을'은 방황하던 서정적 자아가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③ '나그네'는 고향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④ '한 많음'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공간과 소재가 나그네인 화자의 유랑 의식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시적 소재는 문맥 속에서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 시에서 '구름', '물길', '나그네', '가노니'는 한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화자의 처지를, '한 많음'은 그러한 화자가 지닌 개인적 슬픔과 한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구름'은 흘러가고 '물길'은 칠백 리나 이어진다. 이처럼 정처 없이 흐르고 길게 뻗은 소재는 정착하지 못한 채 유랑하는 화자의 내면과 대응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서정적 자아가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강마을을 바라보면서도 마지막에 '가노니'라고 하여 계속 길을 간다. 올바르게는 '강마을'은 화자의 여정 중 마주한 향토적이고 정감 어린 공간이지만, 정착 의지가 실현되는 공간은 아니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고향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의지'이다. 시에는 고향이나 현실로부터 적극적으로 탈출하려는 의지가 제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나그네'는 한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슬픔과 한을 안고 떠도는 화자의 처지를 상징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이다. '한 많음'은 '병인 양하여'라는 표현과 결합해 화자 자신의 깊은 슬픔과 한을 드러낼 뿐, 민중 공동체의 삶이나 전통 미학의 구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한 많음'은 유랑하는 화자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비애를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강마을'의 따뜻하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곧바로 정착 의지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시의 끝에서 화자가 '가노니'라고 말하므로, 강마을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며 바라보는 정경이다. 또한 '한'을 무조건 민족적·민중적 정서로 확대하지 않고, 작품 안에서 누구의 어떤 정서로 제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간이나 소재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이동을 나타내는 시어와 마지막 행을 함께 확인한다. '흘러가는', '칠백 리', '나그네', '가노니'처럼 이동이 반복되면 정착이나 현실 탈출의 의지보다 유랑하는 처지와 내면 정서에 초점을 둔다.

암기 포인트

흐르는 구름·물길과 '가노니'는 정착이 아니라 유랑, '한 많음'은 민중 전체가 아니라 화자의 내면적 비애이다.

NoteBase

24. 다음 한자어의 발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천루(摩天樓) - [마천누]
② 공권력(公權力) - [공꿘녁]
③ 생산력(生産力) - [생산녁]
④ 결단력(決斷力) - [결딴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받침 'ㄴ'과 뒤 음절 첫소리 'ㄹ'이 이어질 때의 유음화와, 합성어 등에서 'ㄹ'만 'ㄴ'으로 바뀌는 예외 발음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적인 유음화: 'ㄴ'과 'ㄹ'이 이어지면 'ㄴ'이 'ㄹ'로 바뀌어 두 소리를 [ㄹㄹ]로 발음한다. '천루'는 이에 따라 [철루]가 된다.
예외적인 비음화: 일부 단어에서는 앞의 'ㄴ'을 유지하고 뒤의 'ㄹ'을 [ㄴ]으로 발음하여 [ㄴㄴ]이 된다.
'권력·생산력·결단력'이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마천루'의 '천루'에서는 'ㄴ'과 'ㄹ'이 모두 [ㄹ]로 발음된다. [마천누]가 아니라 [마철루]가 올바른 표준 발음이다.
② O — '공권력'은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고 된소리도 반영되어 [공꿘녁]으로 발음한다.
③ O — '생산력'은 'ㄴ' 뒤의 'ㄹ'을 [ㄴ]으로 발음하므로 [생산녁]이 맞다.
④ O — '결단력'은 '결단'의 된소리 발음과 'ㄹ'의 [ㄴ] 발음이 함께 나타나 [결딴녁]으로 발음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마천누]는 '공권력·생산력·결단력'에서 나타나는 [ㄴㄴ]형 예외를 '마천루'에도 잘못 적용한 발음이다.
'마천루'는 일반적인 유음화가 적용되어 [마철루]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ㄴ+ㄹ' 연쇄를 보면 먼저 일반 원칙인 [ㄹㄹ]을 적용한다. 다만 '권력·생산력·결단력'처럼 표준 발음이 [ㄴㄴ]으로 정해진 예외 단어는 따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마천루는 [마철루], 공권력·생산력·결단력은 뒤의 '력'을 [녁]으로 발음한다.

NoteBase

25. 다음 글의 중심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이제 우리는 세계의 변방이 아니다. 세계화는 점점 더, 과거와는 분명 다르게 우리가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인의 예술성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전략'이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장에 우리의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
> 한국인의 끼는 각별하다. 신바람, 신명풀이가 문화유전자로 등록되어 있는 민족이다. 게다가 신이 나면 어깨춤 덩실덩실 추던 그 어깨 너머로 쓱 보고도 뚝딱 뭔가 만들어낼 줄 아는 재주와 감각도 있고, 문화선진국의 전문가들도 감탄하는 섬세한 재능과 디테일한 예술적 취향도 있다.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은 오늘날, 우리가 먹거리로 삼을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바탕들이 다 갖추어진 유전자들이다. 선진이 선진이고 후진이 후진이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선진이 후진 되고 후진이 선진 될 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법이다. 우리 앞에 그런 전환점이 놓여 있다.

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실리감각
②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포부
③ 냉엄한 국제질서에 따른 각박한 삶
④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에 대한 아쉬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 전체에서 반복·강조되는 내용을 종합하여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심 내용은 글쓴이가 글 전체를 통해 가장 말하고자 하는 핵심 생각이다. 이 글은 세계화로 한국 예술을 알릴 기회가 왔고, 한국인의 뛰어난 예술적 자질과 고유한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다는 기대와 포부를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실리감각'은 글의 방향과 반대이다. 글은 현재에 머무는 태도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할 전략을 마련하고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바르게는 '세계화의 기회를 살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② O — 세계화의 기회, 한국인의 예술적 잠재력, 선진과 후진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하므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포부'가 글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한다.
③ X — '냉엄한 국제질서에 따른 각박한 삶'은 글에 제시되지 않는다. 세계 시장은 한국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제시된다. 올바르게는 '세계화 속에서 한국 예술이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이다.
④ X —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에 대한 아쉬움'은 글의 소재나 주장과 관련이 없다. 글은 전통적 풍속의 소멸이 아니라 한국인의 예술성과 문화 상품화 가능성을 강조한다. 올바르게는 '한국인의 예술적 자질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포부'이다.

오답 포인트

글에 '문화유전자', '신바람', '신명풀이' 같은 전통적 표현이 나온다는 이유로 ④를 고르면 안 된다. 이 표현들은 사라지는 풍속을 아쉬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첫 문단의 문제 제기와 결론, 여러 문단에서 반복되는 핵심어를 연결한다. 이 글에서는 '세계화의 기회', '우리만의 전략', '예술적 자질', '전환점', '새로운 역사'가 모두 미래를 향한 긍정적 전망으로 모인다.

암기 포인트

중심 내용은 일부 소재가 아니라 글 전체의 반복된 주장과 결론을 포괄해야 한다. 이 글의 흐름은 '세계화의 기회 → 한국인의 예술성 → 미래 도약'이다.

NoteBase